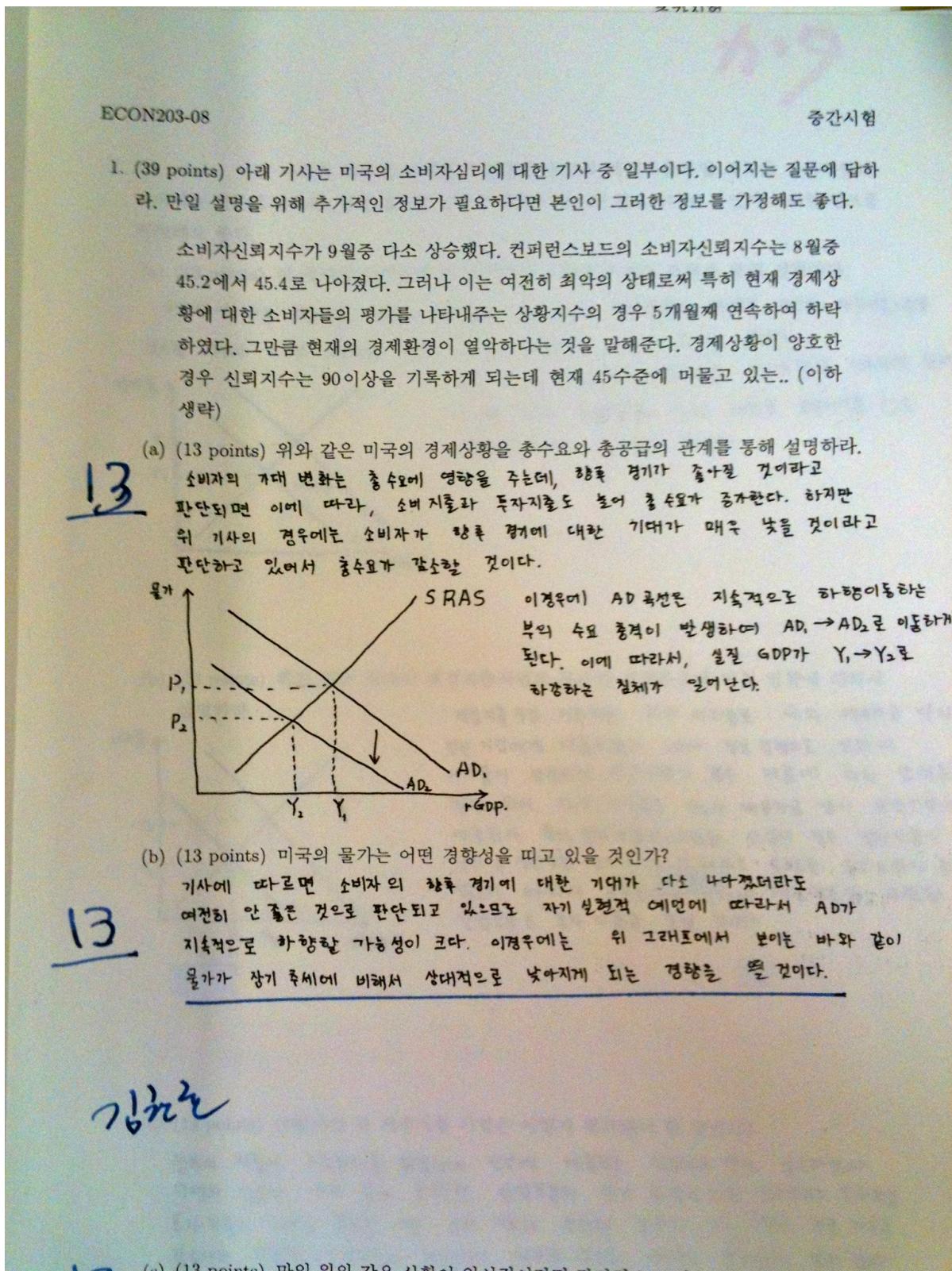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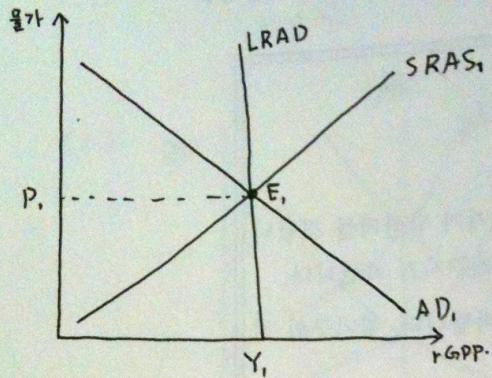
2011 가을 경제원론2(08분반) 중간시험 모범답안

1a-c : 작성자: 김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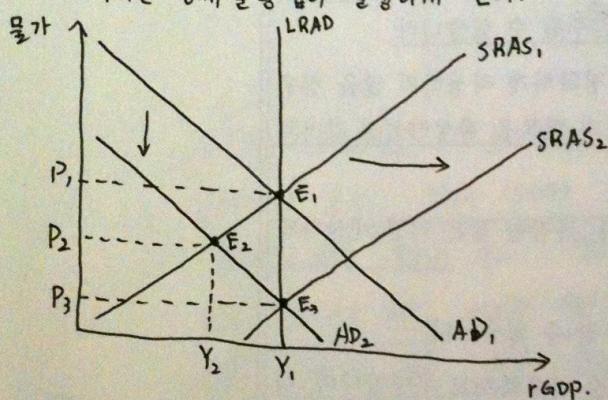


1. (c)

소비자의 황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 총수요-총공급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자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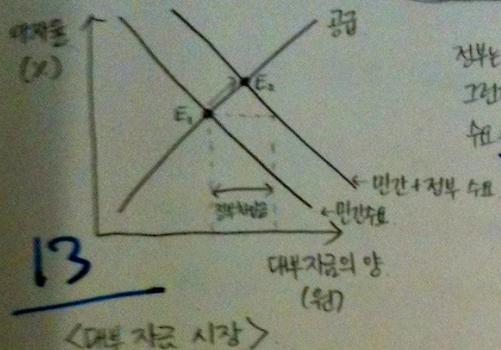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AD₁이 소비자 기대 변화로 인하여 하향 이동되면서 새로운 단기 균형 E₂로 이동하게 되면서 물가와 rGDP가 모두 하락하는 경제불황 갭이 발생하게 된다.



경직적인 가격도 선축적으로 변하는 장기에서는
경제불황 갭이 발생할 경우, 실업의 증가함에 따라
임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이 다시 생산을 증가시킬
여건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생산이 증가하면서
SRAS₁ → SRAS₂로 이동하여 새로운 단기 균형 E₃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물가는 P₃가 되어 더욱 하락하지만 다시 잠재 총
생산량에 도달하여 장기 균형을 이루게 된다.

2. (39 points) 어떤 나라의 정부가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라. 만일 설명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그러한 정보를
가정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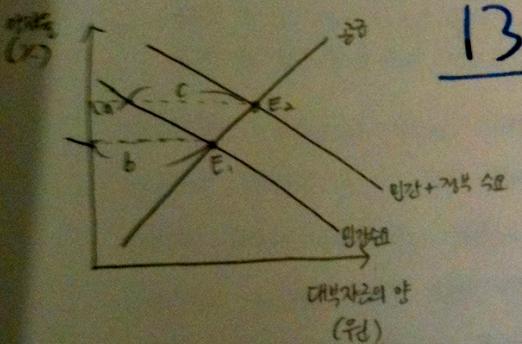
- (a) (13 points) 이 국가의 이자율에 미칠 영향을 수업에서 배운 모형을 통해 설명하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자금 수요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요곡선 자체를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균형점이 E₁에서 E₂로
이동,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윤희경

- (b) (13 points) 위와 같은 정책이 재정지출사업과 무관한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자율이 상승했기 따라 a를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낮은 사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이자율 상승이전에는 b만큼 민간이 대출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c만큼 정부가 차입할 때 따라
b에서 a로 대출 가능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즉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
(b-a) 양금의 증가

- (c) (13 points) 그렇다면 위 재정지출 사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13

그래프 상에서 보면 재정지출로 인한 적자가 구축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만 재정 지출 사업이 장기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두렵다. 즉, 지금 상태에서도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3a: 작성자: 전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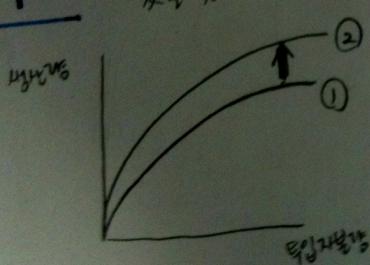
ECON203-08

중간시험

3. (22 points) 아래 질문들에 답하라. 만일 설명을 위해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그러한 정보를 가정해도 좋다.

- (a) (11 points)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R&D)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거시적 효과에 대해서 논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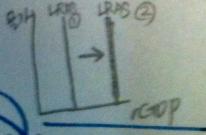


연구개발은 장기상황에 핵심요인가 되는 기술(technology)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분명 양질의 synergy 효과를 불러오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자본과 생산량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물질자본 (K/L), 인적자본 (H/L) 등은 ①, ② 부선내에서만!!
자본 한계제한(자본투자를 수록 단위당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rightarrow 물질자본에만
부이면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특성을 만들다.

개나기초의 변화를 ① \rightarrow ②로는 그 선상의 기울을 개선해라.
이는 LRAS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ightarrow LRAS(①) \rightarrow LRAS(②)



- (b) (11 points) 생활수준, 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두 국가 A, B가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A국가는 평균 가구 구성원 수가 4인인데 반해, B국가는 10인이라는 점뿐이라고

3b: 작성자: 박시영

기술의 발달이 늦어진 것이나 반면 법으로 기술을 보호한다면(저작권법 등) 파급효과가
줄어들어 후속발명이 줄어들 것이다.

- (b) (11 points) 생활수준, 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두 국가 A, B가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A국가는 평균 가구 구성원 수가 4인인데 반해, B국가는 10인이라는 점뿐이라고 한다. 즉, B국가는 대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A국가는 혁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 경우 두 국가의 GDP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근거도 함께 제시하라.

||

혁가족이 많은 A국가의 GDP가 대가족으로 구성된 B국가보다 GDP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가족이나 대가족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내에 식사서비스나 옥아서비스, 청소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혁가족이 대가족보다 이런 집안일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파는 부를 부르면 당연히 GDP는 높아진다. 또한 혁가족은 대가족보다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주택이나 가구 등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필요하게 된다.

박시영